『治維와保安、倂用은 法律的反感을산다』

보안법폐지론에대하야김병로씨의 장광설에만장은이를일치가결해

續開한辯護士大會

작일석간계속‖이십칠일오후한시십분에휴회하얏든것을재개하고먼저조선변호사협회를설립할것(朝鮮辯護士協會를設立할것)이라는의안을상정하기시작하야협회를설립하고그대신예년사법관회의(司法官會議)가잇슬적마다경성에서변호사대회를열기로한후재판소구성법을실시할것(裁判所構成法을實施할것)이라는의안을상정시키고경성고하(古賀)씨가의안에대한설명을하매 김병로(金炳魯)씨가극히흥분된 안색으로 단에올라열정이 넘치는 어됴(語調)로이것을 극력반대하야 한경론자들의 예긔(銳氣)를 꺽고이어경성송본정관(松本正寬)씨가다시이것을 조선에 실시하기는시긔가아즉 일르니 나종에사회상태의발뎐뎡도를딸아하자는보류설(保留說)을 불으지저 결국은위원부탁(委員附託)을하기로하고배심법을 조선에실시할것(陪審法을朝鮮에實施할것)이라는것도 위원에게 부탁키로하얏스며 다음으로 보안법은이를폐지할것(保安法은此를廢止할것)에 돌어가김병로(金炳魯)씨가또한등단하야보안법이라는것은구한국말엽(舊韓國末葉)에정치뎍으로민중의간여(干與)를방지케하기위하야만든것인데 더 자세한 립법(立法)의동긔(動機)는자세한 설명을아니하여도 알것이나 근자소위불온(不穩)하다는행동을 방지하야치안(治安)을 유지(維持)코자한다고조선에도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뎍용하면서 엇지하야 적접이구한국의유물을 적용하는것이냐 치안유지법을 쓰면서도 이와가튼법령을 내나뎌욕하는민권(民權)을유린(蹂躪)하는 행위이며 딸아민중의법률뎍반감(法律的反感)을사서 사법권의 위신에거리끼는일이라고 거침업시 장광설(長廣舌)을토하야만장의박수를바든후일치가결(一致可決)하얏더라 (작보 재판소구성법실시가결이라함은오보)

訴訟代理刑罰問題 又一小波瀾惹起 남은의안은위원에일임코 午後三時無事終了

다음으로 변호사가 아니고서타인의소송에관여하는것을금하고 차에일정한 제재즉형벌을 과할 법규를속히 규정할것(辯護士가아니고서他人의訴訟을關與하는것을禁하고此에制裁「刑罰」을科할法規를速히規定할것)이라는의데를 상정시키고안무(安武)씨의 설명이잇섯든 바함흥 최용묵(咸興崔容默)씨가 일어나 그것을 금지는할는지 모르나 죄업는사람을 형벌이나 제재를시킨다는것은법이아니라고하얏스나이것은직접그들의수입문데(收入問題)에관계된것이라하야시 일치가결 하얏스며그후설명을요치아니하고몃몃가지를 가결한후 동세시십분에 시간이업다는 관계로 남저지의안(議案)은 권부경성조선인 변호사회와 일본인 변호사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의원(常任議員) 의장(議長)등으로조직된 위원에게 일임키로하고부산(釜山) 안무(安武)씨의발성으로만세삼창(萬歲三唱)이잇슨후폐회하니 권조선변호사대회는 이로써 무사히 종료되고오후네시에 참가하얏든 변호사 일동은총독부로우원(宇垣)총독대리의초대연에 참석한후 해산하얏더라

可決된議案 알에와갓다

권조선변호사대회데이일오후에 가결한 사항은 알에와갓더라

一、陪審法을朝鮮에施行할것

一、保安法은此를廢止할것

一、辯護士가아니고서他人의訴訟에關與함을禁止하고此에一定한制裁즉刑罰을科할法規를適히規定할것

一、少年及家事의審判에對하야는特別機關을設할것

一、裁判所及檢事局의朝鮮人職員의地位에對한差別을撤廢할것

一、三人以上의判事로써組織한部에서合議로써하는裁判에는可成朝鮮人判事를干與케할것

一、改正民事訴訟法은全部此를朝鮮에施行할것

一、檢事事務取扱並司法警察官事務取扱制度를全廢할것

「制令七號와集會令 討議못한것이遺憾」 부득이래년을기다린다는 【辯護士金炳魯氏談】

금번권조선변호사대회에서만흔 의안을시간관계로남기고유감이나마위원에게일임한후폐회하얏다함은 별항과 갓거니와동대회가종료된후에 변호사김병로(金炳魯)씨를 방문한즉알에와가티 말하더라

금번의 대회는 권조선뎍으로 모히기는 이번이 처음인데먼디방에서도 만히들 참예한것과기타여러가지로만히두호하야주신사회각방면인사에대하야도감사하기마지안습니다의사에대하야는대개긴요한문데를 모다먼저 처리하게되엇는즉 남은의안에도 별긴요한것이야 만치마는 직접긴급을요하는것은 대정팔년제령데칠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와집회취톄령(集會取締令)폐지에대한것과 『모루히네』『코카인』주사자처벌령개정입니다 그러나 래년개회때를 기다릴수밧게업습니다

等級이薄하다고 一般不平頗多

장호원생견공동판매소(長湖院生繭共同販賣所)에는 권년보다 팔려오는고치의수량이 삼분의일도되지못하다는데 그원인을들은즉 등급(等級)이 넘우나박하야 큰등과일등으로들든 이등도극히드믈음으로 자긔집에서 제각기제사(製絲)하는이가다수이며혹엇던이는잘못된들 발면서도할수업시 다른곳공동판매소(共同販賣所)로가지고가서 파는이도업지안타더라(장호원)

中國人과亂鬪事件 十名有罪決定 작년대구에서생긴사건 近一年만에豫審決定

긔보‖대구경뎡일뎡목(大邱京町一丁目)에잇든 만경관(萬鏡館)에서중국인(中國人)이흥행(興行)할때 조선인과 중국인사이에 사소한 말성으로 시비가되어 만경관문전에는 일대격투까지일어난후 그들은 다시경뎡이뎡목 군방각(京町二丁目群芳閣)『中國人料理店』으로달려가서 집을부수고 사람을따리며 중국놈은 잡아죽인다고 야단을처서일대소동을 일으킨후 또다시그외두어중국인의집을차저가서야단을친결과 당시대구에서는일대소동이 일어나서 매우성이되엇스며 심지어 국데문데(國際問題)까지잇스리라고 큰문데가 되엇슴으로 대구서는관계자십여명을인치하야 취됴한후 대구디방법원검사국(大邱地方法院檢事局)으로 넘겻든바 그들은 예심(豫審)에서 거의일년동안이나 취됴중이든바 일권에야비로소예심종결(豫審終結)이되야유죄십명과 면소네명이(有罪十名及免訴四名)되엇스며 죄명은소요상해훼기(騷擾傷害毁棄)이오피고의 일흠은 알에와갓다더라 (대구)

◇有罪決定被告

崔補林(三一) 金炳奎(三五)
李成瓚(三一) 張在玉(二九)
張應先(二八) 朴俊燮(三二)
白祥基(二三) 金鍾岩(二?)
朴在洪(二三) 韓有權(二?)
林敬達(二一) 金浩祚(二?)
尹萬有(二一) 韓日鳳(二?)

◇免訴된四名

成學濟(一九) 沈在元(二五)
李好應(二三) 朴天出(二一)

明治町典當舖 侵入怪賊懸賞

긔보‖지난이십사일오권두시경에 시내명치뎡이뎡목 이십팔번디(明治町二丁目) 판본수길(板本秀吉)이라는뎐당표에 괴적한명이 침입하야 뎐당잡은귀금속(貴金屬)급현금(現金)채권(債券)등을합하야만여원어치를 절취하야 갓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그동안 시내각서에서는 대활동을 개시하얏스나 그범인은 시내청진동(淸進洞)에사는리모(李某)인줄은알되 그의종적은 오리무중에싸지고말엇다는데 권긔 피해자는누구든지 권긔범인을잡는 사람에게는 피해액의일할(一割)을 주겟다고 범인의표를 현상에부치엇다고

兩普校六年生 突然同盟休學 원인은선생과교장배척 學務當局은大頭痛

지난십칠일에 연일군 령하공립보통학교륙년생(迎日郡淸河公普校六年生)륙십삼명은 권긔시일에 데조시간을 창가시간으로 마음대로변경한일이 이상한일이라하야 훈도(訓導)의 지휘를듯지안흠으로 이에분개한 훈도는 수모자다섯명을 때들가지고 함부로따림으로 신훈도(申訓導)를배척하며동맹휴학(同盟休學)을단행하엿스며 또한 지난이십이일 안동군림하공립보통학교륙년생(安東郡臨河公普校六年 [illegible] 모양이라더라

支拂期日統一 大邱商議서宣傳

대구상업회의소(大邱商業會議所)에서는지불긔일통일(支拂期日統一)을매월말일지불(每月末日支拂)키로 이십칠일정오부터 오후한시까지 시내에대대뎍선뎐하엿는바당일은시내중요상뎜에서한명식출동하야약백명을한대로하야자뎐거를타고각상뎜광고를의미한변장을하야 상업회의소압에서 출발하야 대구권시를돌아다니면서 일반시민에게 뎔저히 선뎐하엿는데대구로서는이와가튼선뎐은처음인모양이라더라(대구)

全甕津對全海州軍 對抗庭球戰盛況 이년간우승한옹진군도 이번에는할수업시참패

금년에도 예년과가티 지난이십오일하오두시부터 해주고등녀학교(海州高等女學校)뎡구코—트에서 련이년간 해주군을참패시키고 우승의영관을 어든옹진군(甕津軍)과 해주군(海州軍)의맹렬한우승의 쟁탈전이 잇섯다는데 옹진군에서는 금년까지우승하면 우승긔를 아주차지하게되겟슴으로자동차오대로응원대사십여명을 실고군악과 나팔을실고와서 결사뎍응원을 하엿고해주군에서는각학교남녀학생의맹렬한응원하에무사히동일하오여섯시경에대회를마치엇다는데 해주군에게이기든옹진군도금년에는 해주군에게비교도못할만티대참패를당하고말엇다하며량편선수의씨명은알에와갓다더라(해주)

甕津軍
1 金仁植 金奭鎬
2 崔基昇 五十嵐
3 金昌鎬 方基澤
4 吳恩洙 崔榮根
5 朴仁淳 鄭錫道
6 金瀚周 朴東麟
7 吳漢玉 申尙均

海州軍
1 木村 鹽野
2 野口 李忠□
3 秦美澤 柳美澤
4 金相益 吳燦虔
5 李萬求 鄭永善
6 中島 金技瑩
7 金應泰 李炳周

期成會員活動如何는 實校設立에큰關係 각면학생들은입학준비에 매우분망한데아즉도막연 各面委員의奮鬪를切望

전남장성군(全南長城郡)은보통학교가 여덜곳이나되어 매년졸업생 이백여명을 내이는터인데 다소의 금전의여유가잇는 사람은 다른상급학교에 보내나빈한한집 아이들은 다른학교에 가지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잇슴을 유감으로녀기던중 당국으로서 실업보습(實業補習)학교를금년도에 전남에두곳을 둔다는 방침을듯고 일변긔성회(期成會)를조직하고 긔디를구하는등국유디대부신청을하는등긔부금을 각면에 분배부담케하는등일시는 야단법석을하야 도당국으로서 긔부금팔천원을 납부하면 인가를하여주기로되어 실업학교설립허가운동은일단락을고하게되엇스나 다만 긔부금문데가난관이든바 우금 사오개월이되도록 팔천원이라는 긔부금이수입이되지못하야 인가를 엇지못하고잇슴으로각처에서입학준비득하기위하야모혀들어와서밥을사먹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은궁금히여기는중임에도불구하고소위긔성회위원들은팔천원을납부하겟스니 인가를 장성으로하여달라고만하고서활동의열심은업게되어 실업학교는 인가를마타가지고 개교할긔회는 망연하다는바 적어도 구월에는개학을하도록긔성회위원들의철저한활동이잇기를일반은바란다더라

共謀者를숨기다 돈안준다고告發

권주(全州)일원을 중심으로 강도질도(强盜罪)의죄를범행하다가 작년륙월에 권주경찰서원의손에잡히어징역칠개년의선고를바다 방금권주형무소에서복역중인김용덕(金容德)은 도적해온금품을권부이서면(伊西面)서정호(徐正浩)란사람에게맛기고약간식갓다생활을하여오던중정호에게 편지하기를 내 처자(妻子)의 생활비를주라하엿스나절도한돈이천여원에한푼도주지안흠으로김용덕은감옥에서즉시서정호는나의 공모자라 함으로이소문을 들은 경찰서에서는즉시서모를 인치하야 취됴중이라더라(권주)

不平두는 永興共同販賣

함남영흥읍내에잇는잡견(蠶繭)공동판매소에서는지난이십오일 오후세시십오분에이르러일장대소동이 일어나는동시에 만원이창련하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영흥군인흥면(仁興面藏北里)에 잇는 심문주(沈文洲)의고치를로파가팔려고 가지고와서동급감정(等級鑑定)원의 손에 검사를 바더든바일등고치로 당선이되엇당시에『저울』에 달어가지고 본인에게 이고치의 가격이 얼마인즉 팔겟느냐고 어보는것을 뎔저히 알어보지도 아니하고 고치를 자긔네가사서 차어노흔고치에 쏘다서 석거버리엇는데 권긔로파는 팔하기를 팔겟다고 달도하기전에 함부로 뎔비면서 쏘는것이 원일이냐하며 이와가티 상당치못한가격에는도저히 팔수가 업다하야쌍방의말이만하지는동시에책임자인 공동판매소 당국자들은 변명하다못하야 고치를다시 반환한다는문데가 일어낫는바 무책임한 당국자는 일이삼사오등까지 혼잡한『고치』중에서일등의감정을 바든 권긔심씨의 고치를가른군량으로 달아줌으로횡일업시로파는 혼잡한『고치』는 가지고돌아갈수가업서서권긔동급의대금을 처음과가티 바다가지고돌아갓다더라

老人重傷 생명이위독 軌道橫斷타

광주군경안면곡리(廣州郡慶安面谷里) 안종호(安鍾浩)(六?)라로인은 이십륙일오전 눌한시경 시내종로사뎡목 뎐차궤도를 횡행하다가 써마츰진행하던 동대문발 의주통행일백팔십이호 뎐차에치어 노인은 인사불성이된것을 곳부근김종합병원(金鍾合病院)으로다려다가 응급수당을 받앗스나 생명에는별로관계가업슬듯하나 로인인관계로 단언할수업스되 전치까지는약일주일가량걸리리라더라

南原의旱魃로 食水까지枯渴 농작물은전멸상태라고 到處에祈雨祭盛行

전북남원(全北南原)디방에는이앙시긔가 이미느진이때에 오십여일을두고 비가오지 안흠으로 농작물은 말라죽을 현상이며식수(食水)까지 고갈한곳이 만하 인심은 극히 공황중에 싸이어잇스며 수일전부터 긔우제를 지내기시작하나 아즉도 오지안는다더라(남원)

振威共同販賣에도 殺風景種種發生 군수를속여먹으려는사닭 ◇……現場은修羅場化

지난이십사일에경긔도진위군텽(振威郡廳)에서 동군농회 기수최양희(崔陽熙)와 안성군공도면(安城郡孔道面)에사는 최모(崔某)의 두사람은 서로격투가일어나 진위군 병남면 세교리(振威郡內南面細橋里) 김병옥(金秉玉)은 던지는 차종에마저 일주일 치료의 상처를당하야 평화의원(平和醫院)에서 치료를 밧는다는데 그내용은 권긔최모가 고치를날려와서 달아본즉 오백본메라고 하야주는 권표를가지고 돈을달라한즉 이백본메갑만 주는고로 어째이것만주느냐고 질문한즉 권긔최양희가내다르며 촌사람이 건방지게관리에게 잔말한다고 구박함으로 그것으로격투가 일어낫스며 지난이십일경에도 그와가튼사실이 또발생하얏다는데 그리유는 진위군고덕면두릉리(振威郡古德面杜陵里) 안모(安某)의 고치이관(二貫)을 구백본메라고하야 말성이되어 결국군수이하각계원이 립회하고 종일산고치를모다 다시달아본연후에 이관인것이 판명되엇다 더라

面職員의非行을 總督府에陳情 상장과상품을압수위조해 다른사람에게준사닭이다

함남북청군 이곡면 사무소(咸南北靑郡泥谷面事務所)에서는 면직원들이 공모하야 총독부의상장(總督府賞狀)을칼로글고다른사람의일홈을 써서교부(交付)한공문서 위조사건(公文書僞造事件)으로 총독부에진정케되엇다는데 이제 그내용을드른즉 대정십사년도 간이국세됴사(大正十四年度簡易國勢調査)할때에 그면인동리김긔순(仁洞里金基順)을됴사위원으로 보고하야 사령서까지왓스며 그후대정십오년 륙월분에총독부로부터 상장(賞狀)과상품목배가오는것을 면직원들이 비밀히 공모하야 김긔순의일홈은칼로글고 자긔들 마음대로동리최상린(崔相麟)의 일홈을 써서부정교부한 사실이 잇다하야 김긔순의아들김용광(金湧光)은 여러번 면사무소에 가서질문하엿다하며 혹은 사과도하든차 매혹은 김긔순의 일홈대로교부하라 하엿다하며 혹은 사과도하엿다는등 규정에의하야 발각되게되옥 요령부득의말을하야일반사회여론이비등하야오든바 결국 지난십칠일에김용광은총독부에진정까지하엿다더라(삼기)

紙上映畫封切

朝鮮키네마第五回作品 **금붕어** 全十卷

原作……金容國
脚色監督……春史
主演……金靜淑 羅雲奎 申一仙

(梗槪)

한쌍의 금붕어와가티 자미잇는 생활을하고잇는 내외두사람이 잇스니 사나희는 송재호(宋在鎬)이오 안해는김희순(金喜順)이엇다

뭇사람의 注視를 버서난곳에서 두사람이 맛나면 滋味잇는노래와 우수운작난이 열리며 近日에와서는 그네들의 新婚紀念으로 금붕어라는小說을 쓰고잇스니 世上의근심은 그의詩로사라지고 고달픈人間의 발자최는 그의小說에 살리게되는것이다 그날의不平과 그날의苦痛은 한마듸우숨에 날려가버리는것이엇다 그러나 理智로 사려가고 熱情으로 벗을對하는宋은 우숨으로만歲月을 보낼수업섯다

그와同窓이요 한會社에다니는任洪烈이가 現實을 저주하며 엇더한戰線에서 사람의幸福을 차즈려다가 會社에서 것츠른支配人의손으로 면직을 당하든때 宋은世上의 第一다정한벗 任을 爲하야 적지안흔마음의 傷處를 바덧다

그任은 法의눈동자를 피해단이며 엇던運動을하엿고 宋은 地方講演會로出張을갓섯다

車時間이 아직남엇스니 한잔만더드십시요 이러케 말하는 支配人의말에 男便을생각하고 將來家庭을 생각하는喜順이는 아니맛는수업시되엇슬때에宋은조마이는마음을것잡을사이업시집으로뛰어와보니사랑하는안해는간곳업고어스름한밤빗이휩싸잇슬뿐이다

(懷疑와落望)

注味가益한宋은찻고불럿스나간곳을몰랏다 喜順이는 自己의낫이붉은것을아는同時에男便을對할것이 근심되어 門안을들어서며 주저주저하다가 두사람의視線은 마주치게되엇다 아! 이瞬間

『어데갓섯서?』『무얼햇서?』

다그치는말에 그는 더듬대답을못하엿다 宋은그길로 주먹을 쥐고 쓰거운눈물을 쌔리며어데인지도모르게멀리멀리가버렷다 任洪烈은支配人과喜順이사이에이러난일을 宋에게말하려하엿스나 뒤에거믄그림자가 딸으기때문에 이리저리피하다가 그만鐵窓으로가고말엇스며 喜順이는어느紡織會社에들어가서그날그날의목숨을이어왓섯다 歲月은흘너서봄도가고여름도지나 다시가을과겨울도지나 다시 봄을맛게될때 북은감옥문전에 세사람이서서 서로울고잇섯다 任이出獄하는날 任의누의가시골서 옵바를마지려오다가 車中에서宋을맛낫다 해매이고,울고,굼고,차오고하든宋은 녯날이그립고 안해가보고십허 이곳을오다가 옷인재親友의누의를맛나 任이감옥에간것을알고 이러케우연한긔회에 눈물거운이야기가열렷다 세사람이喜順이를차즐때에는 벌서 약병을들고 어대로갓다고한다 桂洞막바지 조고마한 喜順이의本家로宋이차저갓슬때에 벌서病院에서왓든人力車가돌아자는때엿다 (사진은금붕어의한장면)

不平두는 永興共同販賣 (see above)

積月旱災와穀價暴騰 一般人心洶洶 일주일만계속하면모다달려 慶北이더욱甚하다고

각디방을 통하야 비가오지아니함으로인하야 농사에 대곤난을당하은 누구나다아는바이나 더욱이경북일대는 오십여일의 감음을 계속하여옴으로인하야 벌서대두, 조, 목디면(大豆, 粟, 陸地棉)은사할(四割)이나 말라죽엇스며 보리(麥)는 이할이나 감하여젓슴으로 그를딸아 륙월중순경(六月中旬頃)부터 백미일두오십전 조일두칠십전, 대두일두 사십전이라는 금액이폭등되엇슴으로 빈한한사람에게 대곤난을주는바 압흐로 일주일만 더계속하야 비가아니오면 모(苗)는 다말라죽을 디경임으로경북일대(慶北一帶)는 대소동(大騷動)을 일으키는 모양이라더라(대구)

論山도旱騷 론산충남

디방에는 한달을두고 비가오지 아니하야 큰소동이던중 지난이

技競動運

今年極東競技부터 印度도參加 爲先八名을派遣

中國側의報道에依하면極東올림픽大會에印度選手參加의件에關하야日比兩國이諒解한後이를承認하게되엇슴으로印度體育協會에서는오는大會에八名의트랙필드選手를派遣할計劃이라더라 【上海發電】

宣川에서開催될 軟式庭球大會

宣川基督敎靑年會主催第三回全朝鮮庭球大會는來七月廿七、八兩日間宣川明信學校코트에서開催할터

巡廻講演會 盛況終幕 경계도엄중

현대평론사순회학술강연회(現代評論社巡廻學術講演會)를 대구(大邱)에서 개최한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와갓거니와 강연회(講演會)는 예뎡보다 연긔되어 지난이십오일 오후여덜시반부터 수뎡히도보통학교 대강당(壽町府道普通學校大講堂)에서 개최되엇는바 뎡각전부터모혀드는 청강자는삼시간에 대만원을일우엇는데징염(蒸炎)에바람한뎜업시더위는심하얏한시간이라도 견대기어려웟도 불구하고 자못긴장한 가온대에서 데일로 리관용(李灌鎔)씨를 비롯하야 강연을하게되바 정사복

看護婦의同情

본적을 권북진안군부귀면궁항리(全北鎭安郡富貴面宮港里)에 둔 안성녀(安姓女)(?)는삼년전에아이를나흔후영양(營養)이부족함으로인하야병에걸려 오래고생하다가 또한금년에도 태긔가잇서 해산할수업는자궁병(子宮病)에걸렷든바이를 측은히 여긴일반동민(洞民)들은 곳전주의원에 입원을시키고 곳수술을하여 남자를생산하엿스나 아이의입힐옷과 먹을음식이업슴을동의원간호부들이 합력하야보조한다 고(전주)

賭博犯逃走

경긔도안성경찰서(安城警察署)에서는 지난이십오일 오후일곱시경에 별안간 서원전부를비상소집하야 대활동을 개시하는동시 청년두명을 동군미양면(同郡微陽面)방면으로 추격하엿다는데 이제내용을들은즉 그날동서에서 도박범(賭博犯) 박흥준(朴興俊)조만오(趙萬五)등을순사박모(朴某)가다리고안성읍내압개천으로부터 자갈을 동서구내(構內)로 운반하든중 전긔범인두명이 거뎍때를 리용하야일제히 도망하여버렷슴으로 동서에서 그들을다시 톄포코자그와 가티 활동을한것인데 범인의종적은 아즉것 오리무중에잇다더라(안성)

同飮醉友를 路上刺殺 자는것을죽여

원적을해주(海州)에두고재령읍 문창리(載寧邑文昌里) 김려수(金麗洙)의집에고용으로잇는권상근(全相根)과동군향교리(鄕校里) 김두찬(金斗贊)의집에고용으로잇는오준환(吳俊煥)이란두청년은 지난 이십삼일엇던주뎜에서 술을먹고 헤어진후권상근이가향교리부근 길가에서잠들어잇는것을본 오준환은 식도로목을찔러 권상근은 깨지도못하고 그냥죽엇다는데 그두청년은원래사이가 조치못하든판에 그와가티죽인것이오범인은곳톄포하얏다더라

現代와朝鮮 哲學博士李灌鎔
常識의錯誤 經濟學士李寬求
科學의主觀 洪起文

暗葬타告訴當코 失性해愛妻打殺 자긔도오사

영천군화동면 계지동(永川郡淸通面桂芝洞)리팔봉(李八封)(三)은 지난이십삼일 오후오시에 자긔처리성녀(李姓女)(三)를 작도(斫刀)로 찍려 죽이고천긔리팔봉도 곳부근 룡전(龍田)이라는 언덕에 넘어저죽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들은즉 리팔봉은 한달전에 자긔부친이 죽어친척되는 리모(李某)의산에매장하엿는바 리모는 자긔선산에 매장한것이 불가타하야주재소에 고소를 하엿슴으로 그후부터 리팔봉은 늘번민을하게되어 마츰내정신에 이상이생기엇는데 그의처 리성녀는 늘낫기를 긔도하며 각종의 약을 써오든중 돌연히 이십삼일에이르러서는 약을거절하고 권하는자긔처리성녀를 작도로 따려죽이고 리팔봉도한시간이 못되어선산으로쫏차다니다가룡전(龍田)이란언덕에떨어저죽엇다더라

僧房悲曲

(朝鮮키네마撮影興行)

獨鵑作 羅雲奎撮影監督 [43]

마계(魔計)(十)

마계를 꾸미고안젓는 박이환등은 돈오천원을가지고돌아올 홍태규를 초조히기다리고 잇섯다 그러나태규가 해가저도 돌아오지안흠에 그들은 별별의심이다낫다

『대톄엇지된 셈일가? 일이 순서대로만 되엇스면 벌서돌아올텐데……? 아마도 은숙의아버지가 버틔는모양인가? 태규가일을 섯불리햇는가? 필수는 모든것을 준비하고 기다릴모양인데?』

이러케 초조하고 불안한박이환은 부하들두사람을 다시보내어 진상을 알아보고 만일김창호가 바틔고잇스면 집벌둥돈이 협박을하여도돈이나오도록하기로생각하고이번에는 진정으로 화가나서 은숙에게다시눈을 다라매고 위협을하엿다

『아모래도 당신아버지가 말을안듯는 모양이구려 또다시사람을 보내볼터이니 당신의의견을 돈이나오도록 다시편지를쓰시요 만일되지안흐면 그때는우리가최후수단을 쓸터이니……』

『무에라구든지 불르서요 그대로쓸터이니 아모래도 그러케 만흔돈은 업슬터인데요 그래못되는가 봅니다』

은숙은참으로 난처하엿다 물론자긔집에 그만한돈은 업슬터이고 그러타고돈이안되면 자긔에게는 무슨위험이 잇슬지모르는 추측키어려운 걱정에 다시붓을 든 은숙의온몸은 떨렷다

『영일옵바에게 긔별을하여의론을해보는것이 차라리 나을텐데……』 이러케생각한은숙은 다시 박이환에게 애원하여보앗다

『여보십시요 우리아버지께는 백번해봐야 업는돈은 엇절수업슬뜻하니 아모데나 돈이될만한 다른곳으로 긔별하도록하면 엇덜가요?』

『응……혹사람에딸아서는 될데도잇겟지요 어데딸입니까?』

『저—운외사에게신 우리옵바되는이게두하겟습니다』

『안될말입니다 절대로안됩니다 되거나 안되거나 아버지 한테나다시 해보십시요 그래서 안된다면 할수업는일이고……』

『아 아 이런때에나를 구할줄이는 업는가?』

은숙이는 무서워서 눈도못감고 마음속으로한울님에게 어하고기도를드렷다

이때이다 돌연히 문을박차고뛰어들어오는 양복입은 청년하나가잇섯다

『이놈들! 이 도적놈들!』

이러케소리를 질으며 은숙의엽흘박아스는것은 꿈에도 생각지안흔 필수이엇다

은숙은 이때처럼 필수를반가워한적이업섯다 아니 이때처럼 필수를 반가워해본적이 업섯다

필수의 손에쥐인 권총부리는 약차하면 『탕』할드시 여러놈을 겨누고잇섯다

지금까지서슬이 푸르든 악한놈은 고양이를맛난쥐 모양으로이리저리 흐터저압뒷문으로 모조리다라나버리고 남은것은 굽차노흔 도야지가튼 운뎐수하나뿐이엇다

『은숙씨 이게엇지된일입니까?』

필수는 비로소 은숙에게말을부첫다

『아이그…… 리선생님엇더케알고오섯서요!』

은숙은 감격에넘치는 어됴로대답했다

『자세한말슴은 차차하지요…… 이사람은 웬사람입니까?』

『참 그이들어서붓들려주서요저들태우고오든 운뎐수입니다』

필수는 결박당한 자동차운뎐수를풀러노흐며

『로동참고생하엿구려 그래자동차는 어데잇소? 여긔서지체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자동차를 준비해노코오서요 우리는 여긔서 기다릴터이니』

『자동차는 산미테세워두엇섯는데 그대로잇는지 모르겟습니다가보고 오지요』운뎐수는이러케 대답하며 총총히밧그로나가버렷다 필수의뒤에 꼭누러섯는 은숙의손은 어느때엇더케 붓잡혓는지 필수의 손에쥐어잇섯다 은숙은이것을떼어버리려고도생각지안코그대로서잇섯다